
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

수신	전북지역 시민/사회/노동단체, 전북지역 언론사
참고	언론사는 사회부
내용	10.24 전북고속 감사청구 기자회견 논평
문의	063-278-9331, 010-8639-0214 (채민)

이제는 민원을 감사청구라며 뺑뺑이까지 하는가?

- 10.24 전북고속 감사청구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-

1. 전북고속(대표: 황의중) 임직원 5명이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고속의 국고유용 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보조금 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.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**감사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'일반 민원'일 뿐**이라는 게 확인됐다. 일반 민원을 감사 청구를 했다면 여론을 호도하는 황의중 사장의 작태가 한심스러울 뿐이다.
2. 지난 4월 버스파업 대책위에서도 전주시 버스보조금 지급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청구를 진행했다. 단기간이었지만 시민들의 호응으로 **감사청구 조건인 '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부'**를 넘는 6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'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'를 접수했다. 그런데 **5명의 임직원이 한 일반 민원 접수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며 감사청구를 했으며 기자회견을 연 것은**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. 파업 해결을 미루면서 최근 있었던 국고유용 문제에 대한 여론의 초점을 흐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.
3. **단체교섭응낙가처분 패소,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기각 등을 통해 법 앞에서 전북고속의 잘못이 날 낱이 밝혀지고** 있다.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와 여론호도만 일삼는 사측으로 인해 파업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.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버스파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원하는 것이 도민들의 염원이다. **전북고속은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파업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.** 끝

2011. 10. 25 화

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
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